

우리 양축인의 자세를 대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유제현

한국낙농학회 회장, 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에 불어닥친 위기는 유축농업으로 축산입국의 푸른 꿈을 갖고 선진국을 뒤 쫓아가던 때와는 달리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이 낙농·육우산업의 급속한 위축은 낮은 생산성과 축산물의 시장경쟁력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축산물의 생산원가 단위가 과도하게 높고 소비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낮고 특히 자급사료의 생산기반이 열악한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은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IMF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은 수입원료와 배합사료비의 폭등은 물론 조사료비와 약값과 방역비의 상승, 축산오폐수의 환경규제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건비 등의 상승과 축산관련지원금의 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는 내일의 계획은 커녕 그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상당수의 목장과 비육농가는 폐업을 했고 또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에 의한 우유의 생산량과 유제품의 소비량이 많고 비육우의 숫자와 육류의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대국이요 선진국들의 대열에 끼여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축산을 식량의 기간산업으로 키우지 않는 나라가 없다.

“ 낙농에 의한 우유의 생산량과 유제품의 소비량이 많고 비육우의 숫자와 육류의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대국이요 선진국들의 대열에 끼여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축산을 식량의 기간산업으로 키우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도 1960년 이후부터 몇차례의 경제5개년개발계획에 따라 숫자적 증가에 주력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양축인은 이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낙농·육우농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축산인 스스로 모두가 지혜롭게 힘을 모아 노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1세기의 주인이 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에게 국가식량의 기간산업인 축산을 이런 상태로 포기하고 물려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말이다. 한나라를 바로 일으키는 흥국(興國)은 올바른 선비를 만들어야 (흥사,興士) 하고 그 바른 선비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고 결정되는 것 즉 흥심(興心)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축산위기를 극복하고 일으켜 세워 경영수지를 맞추어 가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우리의 마음에 그불을 키고 각 지역마다 축산의 올바른 불을 부친다면 우리 축산은 열리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양축인의 자세를 대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행정당국이 선도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전국방방곡곡에 정착시켜 나가자. 내가 생산하는 일차 축산물을 가공업체와 더불어 우리자신의 힘에 의해 브랜드화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에 의한 중간상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생산자와 특히 소비자의 이익이 되게 바꾸어 가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2800여 개의 철사 줄을 꼬아 만든 두 가닥 큰 줄에 매달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 현수교(懸垂橋)다. 그 다리는 1930년대 만들어 졌지만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 대지진 때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적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고 줄을 삼 겹으로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말씀처럼 우리 낙농·육우농가는 각 지역의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그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 뿔뿔이 있는 지역도 이미 있지 않은가.



경제적 독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 없다는 말처럼 낙농·육우농가의 힘은 자신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만 한다.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조금(自助金)을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자조금은 양측인 모두의 권익을 위하는 길이다.



「가련(可憐)한 자제(子弟)에게 수치(羞恥)적 재산(財産)을 유여(遺與)치 아니하려 면,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영구(永久)완전(完全)한 경복(慶福)을 도영(導迎)하려면 최대급무(最大急務)가 민족적 독립(民族的 獨立)을 확실(確實)하게 함이니」라는 독립선언서 중의 일부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 없다는 말처럼 낙농·육우농가의 힘은 자신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만 한다.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조금(自助金)을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자조금은 양측인 모두의 권익을 위하는 길이다.

더불어 각 목장마다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집약관리를 설정하고 규모확대와 새로운 사양방식의 도입을 추구하는 경영형태의 실현과 사육비의 최소화로 순이익의 최대화를 설정하자.

각 목장에서는 사육두수가 아니라 착유두수의 규모로 전환하고 산유능력검정에 의한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며 사료자원의 개발과 사료작물의 작부체계를 세워 효율적인 비배관리로 생산성을 올리자. 유희지의 초지조성으로 사료작물의 증산을 도모하고 벧짚의 처리가공으로 그 이용효율을 최대화하고 인근지역의 음식물이나 두부박이나 맥주박등 부산물이나 기타 자원을 활용하자.

티엠알(TMR)급여방식도 활용하자. 적정한 사양과 목장관리로 경영개선을 하자. 원유의 품질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도입하자. 원료에서부터 가공 처리 생산된 제품까지 신선하고 합당한 가격에 거짚이 추호도 없을 때, 보다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유통되어 공급될 때, 그리고 그 제품들을 연구하여 자랑하고 광고하고 선전할 때 우리의 축산물을 소비지는 사주기 마련이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위와 같은 실천은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성취될 수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낙농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보호 발전시키려는 의지



깜깜한 밤바다 위에 반짝이는 등댓불은 길 잃은 배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 등댓불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인 결과인 것처럼 우리의 낙농·육우산업도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고 또 분명히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



가 확고히 서야하며 21세기 선진낙농으로 가기 위한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세부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축산제품의 품질관리는 물론 유통관리와 소비촉진에 힘쓰며 낙농현장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축산환경오염의 문제는 장기저리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양축가의 부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책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한다.

공영검사기관에서 검사체계의 개선으로 유지방의 함량과 세균수와 체세포와 함께 유단백질 및 유당등의 무지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유대를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생산을 줄이는 사양기술이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요즘 10만원에 구입하여 사육한 송아지고기 생산과 그 소비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영양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낙농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공감대의 도출로 공동의 위기감과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마음(興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의 조성을 빠른 시간에 실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빨리 득이 오리라고 믿는다.

이 위기는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양축가들이 스스로 모은 자조금에 의해 해결하여 극복해 가자. 우리 후손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자.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열 때 축산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구한다면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고 꼭 성취될 것으로 확신한다.

깜깜한 밤바다 위에 반짝이는 등댓불은 길 잃은 배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 등댓불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인 결과인 것처럼 우리의 낙농·육우산업도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고 또 분명히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 ㉞